

제 1 교시

國語 영역

홀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존 어리는 ‘문화적 안경’이라는 탁월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는 행위의 사회성을 밝혀냈다. 시선의 틀은 규범이나 양식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결코 개인이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스키 료타로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관광 기념품으로 선호하는 것은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표상하는 수제 잡화인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동양 문화를 표상하는 미술품으로서 대형 항아리를 구한다고 한다. 여기서의 관광객이 소속된 사회에 따라 방문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다.

야마구치 마코토는 광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대다수가 낙원이나 리조트 같은 광적 기호가 가득한 타문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 주변에 펼쳐진 다양한 현실에 대한 상상력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은 프레임을 통해 사물을 본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시선에는 항상 선별이 뒤따른다.

시선의 경계선을 긋는 것은 관광객뿐만이 아니다. 하시모토 가즈야는 관광객이 기대하는(강요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역할을 관광지 주민이 재연하는 것은, 관광이라는 거친 파도로부터 자신의 생활 문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 측의 ‘전략’이기도 하고 말한다.

찰나적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매력을 느낀다는 관광 시선의 폭력성은 끝이 없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는 식민지 주민의 ‘전시’가 이루어졌다. 악명 높은 인간 동물원이다. 보는 주체(주로 서구 남성)와 보이는 객체(주로 비서구 여성) 사이에는 넘기 힘든 선이 그어져 있으며, 시선은 경계선의 자의성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권력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근대 이전의 형벌은 대부분 본보기로 행해졌으며, 그것은 절호의 구경거리였다. 현대에도 다크 투어리즘으로 이름을 바꾸어, 끔찍한 것에 대한 욕망이 관광(의 일부)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므로 ㉠ 관광지 주민의 ‘전략’은 항상 외출 타기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딘 맥케널이 『투어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관광객은 연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무대 뒤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생활 관광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隘路)이기도 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관광의 시선이 전역화되어 간다.

㉡ 관광에서 ‘보는’ 것은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하는’ 것과의 대비에 있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라는, 넘기 힘든 (것처럼 보였던) 관계성은 의외의 형태로 반전된다. 관광객이 바라보는 것은 대개 (자신 이외의) 사람들의 생활 실천이나 그 흔적이다. 위대한 예술, 장엄한 유적, 희귀한 풍습, 처음 만나는 식약 문화 등등. 관

광의 장면에서 그들은 ‘보기만 하는’ 이방인이다. 여기서의 보이는 측, 즉 생활을 ‘하는’ 측이 주인공이며, 그것을 ‘보는’ 측은 관객에 불과하다. 인류학이나 지역사회학에 의한 지역, 관광 연구는 생활자의 관점에 무게를 둔다. 그 땅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사자이며, 그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엿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서둘러 떠나버리는 관광객들은 불청객으로 위치 지어져 왔다.

관광 시선의 소비주의와 알파함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부어스틴이었다. 19세기 중반에 여행이 변질되었다고 그는 기술한다. 과거의 여행자가 몰락한 대신 관광객이 대두했다. 그것은 여행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변화한 것’을 의미했다. ‘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의 전환. 여행은 능동적이고 목숨을 건 행위에서,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상품으로,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으로 전락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부어스틴의 한탄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웃기는 쉽다. 그의 관광론은 마치 이상적이고 진정한 여행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후속 관광 연구의 전형적인 비판이지만, ㉢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

표층적인 관광 방식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실제로 관광의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대중 관광이 관광지 사회에 대한 무이해나 무관심이라는 특징을 띠었던 것에 반해, 2000년 이후 새로운 대안 관광이 제창되고 실천되어 왔다. 키워드는 체험, 교류, 학습이다. 지역 주민의 안내에 따라 현지를 걸으며 ‘진짜’ 역사와 문화를 배우거나, 농어촌 민가에 숙박하며 그 땅만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보는’ 관광에서 ‘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은 개별 여행뿐 아니라 오늘날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여행에서조차 주요 메뉴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 현상뿐만 아니라 관광 연구의 시야마저도 갱신을 요구받게 되었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광이 ‘보는 것’에서 ‘하는 것’으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관광은 과연 정말로 ‘보는 것’이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룬 살다나는 어리의 시선론을 비판하며, “관광객은 수영을 하지 않는가, 산에 오르지 않는가, 산책하지 않는가, 스키를 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관광 연구는 어리의 시선론을 넘어서기 위해 이론적 발전을 시도해 왔다. 관광에서의 신체성이나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을 ‘퍼포먼스적 전회’라고 부른다.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과의 연관 속에서 관광을 파악하거나, 관광객의 신체성과 몸짓, 퍼포먼스에 분석의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어리 자신도 요나스 라슨의 도움을 받아 개정판 『관광의 시선』 제3판에 퍼포먼스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관광(연구)에서의 퍼포먼스 개념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하

기에 이르렀다.

관광은 이제 ‘보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소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와 라슨은 시각으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각이 관광 체험의 중심에 있다”고 고집한다. 그에 따르면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은 불모(不毛)한 것이며, 시선과 퍼포먼스는 ㉠ “함께 춤추는” 관계인 것이다.

과거 인류학자들은 조사지에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미답의’ 전통문화만을 욕망하는 시선은 세속적인 관광객들을 교묘하게 배제해 왔다. ‘관광객을 보지 않는 기술’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 만나는 일본인 관광객을 일부러 못 본 체하거나, ‘아무도 없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관광객이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는 등의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는 어빙 고프먼이 말하는 ‘의례적 무관심’이 구사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의 관광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관광객을 보는 기술’도 교묘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리는 산 정상이나 숲속 깊은 곳 등 다른 관광객이 없는 것이 그 장소의 관광 가치를 높이는 상황을 ‘낭만주의적 시선’이라 불렀고, 반대로 다른 관광객도 같은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 장소의 관광 가치를 높이는 상황을 ‘집합적 시선’이라 불렀다. 후자에서는 타자의 존재가 즐거움, 축제 기분, 활기를 부여한다.

타자를 배제하는 시선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선이든, 여기서는 타자의 신체성이 문제가 된다. 요시미 순야는 『도시의 드라마투르기』에서 도시를 걷는 사람의 신체성에 일찍이 언급했다. 1973년 파르코가 시부야에 개점했을 당시의 카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답다”였다. 시부야를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바라본 것은 자본이 연출하는 기호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 “함께 춤추는” 신체였다.

게스트는 다른 게스트뿐만 아니라 호스트로부터도 ‘보이고’ 있다. 다리야 마오즈는 관광객이 지역 주민을 바라봄과 동시에 지역 주민도 관광객을 바라본다고 기술하며, 이를 ‘상호적 시선’이라 명명했다. 오늘날 교토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베네치아에서, 오버투어리즘의 장본인으로서 관광객은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 관광에서의 ‘보는 것,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 사파리 파크는 시사적이다. 동물의 리얼한 생태에 육박하기 위해 사람들은 차에 올라타 특등석을 확보한다. 동물들은 차 주변으로 몰려들어 간절한 눈빛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인간은 다시 동물원의 우리에게 갇혀 시선의 대상이 된다. 과거의 만국박람회와는 달리,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이 아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광객이 가진 이미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주민의 전략은, 관광객의 시선이 그들 사회의 제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 문화의 수용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무엇을 어디까지 보고 보지 않을지에 대한 관광객의 선별에 대응하는 주민의 전략은, 관광객의 자의에 따라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시선에 휘둘리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에게 다가가려는 주민의 전략은, 끔찍한 부분을 선호하는 관광객의 시선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왜곡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자신의 생활 문화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여 연기하는 주민의 전략은, 연출의 뒷모습까지 보려는 관광객의 욕망 때문에 기대하는 것을 끝없이 생활 속에서 보여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광 연구가 주민의 생활을 엿보기 위해서만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판하고, 부어스틴이 목숨을 걸었던 과거 여행자에게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보는’ 주체의 위치 설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 ② 관광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주민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며 여행은 본래 ‘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관광에서 ‘보는 것’의 역할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 ③ 당사자의 시점을 중시한 관광 연구에 의해 관광객은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능동적인 여행을 가치 있게 본 부어스틴에 의해 ‘보기만 하는’ 관광이 경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 ④ 생활자의 시점을 중시하는 연구와 ‘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의 변질을 한탄하는 부어스틴의 견해가 겹치면서, ‘보는’ 측의 관광객이 무의미한 존재로 격하되었다는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층적 관광에 대한 불만이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과 연관 지어 관광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 ② 표층적 관광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옛보는 관광에서 실재를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촉구했고, 이와 병행하여 관광객의 행위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착안점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 ③ 표층적 관광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능동적 여행을 재현하는 관광을 요구하게 했고, 이에 호응하여 관광은 ‘보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을 연구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 ④ 표층적 관광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관광을 실천하게 했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보내는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의 창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㉔와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관광 연구에서 시선과 퍼포먼스가 중요한 관점임을 나타내고, ㉕는 도시 연구에서 상업 시설과 젊은이의 신체가 도시라는 무대를 생각할 때 함께 중요한 대상임을 나타낸다.
- ② ㉔는 관광에서의 시선이 관광객의 신체와 관련되어 성립함을 나타내고, ㉕는 도시를 장식하는 이미지와 사람들의 신체가 함께 도시라는 무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㉔는 다른 관광객과 함께 있는 것이 관광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나타내고, ㉕는 도시를 걷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존재가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④ ㉔는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서로 고도의 상호작용을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㉕는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함께 오가는 도시 공간의 양상을 나타낸다.

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리조트에서의 게스트와 호스트 간 시선의 강요와 달리, 사파리 파크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의 차이가 드러나며 두 시선의 비대칭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 ② 리조트에서의 게스트와 호스트 간 시선의 강요와 달리, 사파리 파크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의 차이가 드러나며 두 시선의 비대칭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 ③ 관광 연구에서 관광객이 불청객으로 간주되듯, 사파리 파크에서도 주인공은 동물이며 인간은 그저 지나가는 관찰자일 뿐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 ④ 관광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 하듯, 사파리 파크에서도 다른 관람객을 배려하거나 함께 관찰하는 등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주의 깊게 보게 한다는 점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